

고해를 건너고 싶은가?... 낮추고 베풀어라

군산 관음사 주지 재곤 스님

중추지절(仲秋之節), 황사로 인해 가을 하늘이 뿌옇다. 때 아닌 황사를 두고 뉴스는 82년만의 10월 황사란다. '저절로 그러하' (自然) 것이겠으나 사람들은 의미를 부여하고, 온갖 알음알이를 동원해 현상을 이해하려 애쓴다.

재곤 스님이 주석하고 계신 군산 관음사를 찾아가는 길, 길가에는 코스모스가, 그 뒤로는 잘 익은 황금빛 벼들이 바람에 일렁인다. 먼 산에는 노랗게 빨갛게 단풍이 번지고 있다.

사실 이 모든 풍경은 그저 그림에 지나지 않는다. 달리는 길 좌우로 펼쳐지는 수백 수천 장의 나열된 필름들. 목적이 아니기에 다다를 수 없고, 그저 지나갈 수밖에 없는 조연들.

하긴, 고속도로를 달리는 나그네에게 이런 망상은 사치에 가깝다. 안전을 이유로 높이 세운 중앙분리대는 맞은편 운전자들을 외면하게 만들었고, 역지로 풀과 나무로 꾸민 길가에는 간간히 표지판과 이동식 카메라만이 서 있을 뿐이다. 그냥 그렇게 원래 그래서 그랬던 모습으로 구불구불했던 시골길에서 보이던 풍경이 한 쪽의 동양화였다면, 고속도로에서 만나는 풍경은 잘 만든 동영상 화면이 틀어진 디지털

나그네는 그러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박가 골목길을 빙빙 돌아 찾은 산허리에 자리한 관음사 주빈이 남달랐다. 둘러보니 앞에 교회, 옆에 교회, 담장이 바로 붙은 뒷집마저 교회다.

관음사에 들어서니 108 지장보살상이 도량 곳곳에 서있다. 피식 웃음이 절로 난다. 누가 그랬던가, 하늘 아래 뻑뻑하게 교회 십자가가 많이 세워져도 하늘 향해 솟은 탑이며, 불보살상, 반세 켜놓은 인등을 합하면 교회 십자가 수보다 절대로 적지 않다고.

좀 전까지 웃던 나그네인데 순간 당황스러웠다. 법당에서 삼배를 올리려는데 아무리 찾아도 불전함이 없다. (나중에 재곤 스님에게 직접 물어 알게 됐지만, 관음사는 '불전함'이라 쓰인 함 대신 공양물 올리는 그릇을 쓰고 있었다.)

재곤 스님은 "차나 한잔 하자"며 "선운사 있을 때 사람들이 찾아오면 도솔천 내원궁이 참 좋더라 권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는 곳은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낮설어 주저하게 되더라"며 말을 꺼냈다. 사람은 누구나 익숙한 곳을 찾고,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말은 습(習)을 경계하라는 말씀이었다.

스님은 "몇일 전 김원주 전북도지사가 마시면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도 베풀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그래서 제불공양(諸佛供養)이 중생공양(衆生供養)이요, 중생공양이 제불공양이라 했던가.

스님은 "바라지 않고 '나'라는 생각 없이 베풀은, 벽에 공을 바로 던져 받는 것과 같다. 정면으로 던져야 공이 내게 돌아오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내게 돌아오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사람은 살면서 행위를 하고, 이것이 업(業)이 된다.

매 순간의 행이 벽에 부딪히는 공처럼 똑바로게 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다.

"나이를 먹으니 저절로 알게 되더군요. 총명한 사람은 스스로 지혜를 갖겠지만, 우둔한 사람도 살아온 과정을 되짚어본다면 옛사람 말씀에 고개가 절로 끄떡여 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나 조사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은 물론 먼 미래에도 가르침을 주는 것이고요. 저절로 고개 끄떡여 질 때의 순간, 그것이 생활불교입니다. 부처님 말씀 어려울 것 전혀

없습니다."

재곤 스님의 삶은 "아낌없이 베풀라"는 말과 하나였다. (탈로만 이웃이 아닌) 정말로 옆집에 사는 이웃 종교인들에게도 그러했다.

"사시사철 관음사 법당은 닫혀있습니다. 새벽 첫승 할 때도, 예불 때도, 법회 때도 그렇습니다. 한여름 삼복더위에도 선통기판 틀고 기도를 올렸고요. 지난해 신도들이 도저히 안되겠다며 법당에 에어컨을 설치했어요."

그랬다. 묵묵 소리, 엽불 소리가 소음이라며 민원을 넣은 이웃종교인 때문에 관음사 법당은 속 시원히 문 열고 예불 한번 모실 수 없었다. 무소의 뽕처럼 그냥 묵묵을 두드리고 묵묵 높여 엽불 할 법도 한데 스님은 그러지 않았다.

해마다 여름이면 신도들은 재곤 스님에게 읍소했다. 문 좀 열고 하면 안되냐고. 하지만 스님은 한결 같았다. 나 좋자고 하는 기도인데 남이 싫다는 짓을 해서 굳이 그 사람들에게 구업(口業) 짓게 해서 안 된다는 이유였다. 재가 있을 때면 "조상천도 하는 좋은 일에 (더위에 땀 흘리는) 이 정도는 참아야 한다"며 다독였다.

"사바세계는 모든 곳이 고(苦) 아닙니까? 고통에서 벗어나려 수행을 하는 것이지요. 각자 자기 하려는 일만 하면 됩니다. 사실 근처에서 관음사가 제일 먼저 들어섰습니다. 지금 있는 교회며, 주박들 모두 나중에 생겨났어요. 옛날에는 혼자 살기 어려웠을 정도로 외로운 곳이었는 데 하하. 하지만 좋은 곳 찾아나오는데 저들이라고 못 올 곳도 아니잖습니까? 지금도 민원이 끊이지 않지만 나는 이곳 관음사가 좋습니다. 부처님도 계시고, (옆집에) 하나님도 계시고, 사랑에 중생이 있어 모두 머무는 곳이 얼마나 좋습니까?"

재곤 스님은 세랍 72세. 속세에서도 적지 않은 나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전스님도 없이 지낸다. 겨울이면 무릎보다도 높이 차오르는 눈이 대웅전 계단을 덮을 새라 솔고 또 솔었다. 관음재일, 지장재일은 물론 조석 예불 한번 빠진 적이 없다.

법당에 석가모니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을 모셨습니다. 내가 모신 분들에게, 내게 가장 가까운 분들을 잘 모셔야겠다는 생각에 관음재일, 지장재일을 빼먹지 않고 챙겼을 뿐입니다."

1978년 스님이 관음사를 일구기 시작할 때만 해도 주변에는 건물 하나 없었다. 허허벌판. 그곳에 재곤 스님은 벽돌을 쌓아 20평 남짓한 법당을 짓고 매주 어린이법회를 열었다. 35세에 선운사 주지를 사는 등 여기저기 소임에 불려 다니다 보니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이 절실히 느껴진 까닭이었다.

하지만 관음사를 창건할 때 스님은 분주했다. 상량식을 하려는데 해남 대홍사 주지를 살라는 연락이 왔다. 거절했지만 결국 재곤 스님은 대홍사 주지를 살았고, 관음사를 다시 찾았을 때는 이미 나운동 일대의 구역정리가 끝나 더 이상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당시 관음사 근처는 논밭뿐이라 길이 험했는 데도

교회에 둘러싸인 관음사 곳곳에 지장보살 지키니

인구밀도 대비 교회 가장 많은 군산서 불국토 꿈꿔

저절로 고개 끄덕여질 때의 순간이 곧 생활불교

역자와 같다.

바쁜 사람들을 빠르게 목격지에 도달시키려 만든 고속도로는 때때로 길의 죽죽 뻗어있다. 산을 가르고, 물을 건너며 이곳과 저곳을 횡단거리로 이었다. 필요하다면 어디든 길이 만들어지는 통에 이제는 '백천만길 지나도록 만나기 어려움' (百千萬劫難遭遇) 것이 무엇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든 게 흔해진 세상이다.

서울에서 군산까지 3시간 30분. 시골길은 없었다.

군산도 가을 황사와 같은 도시다. 세계에서 인구밀도 대비 교회가 가장 많은 도시. 동네마다 교회가 셀 수 없이 많다. 기네스북에 까지 올랐다는 군산에는 20만 인구에 350여 교회가 있다. 100만 인구가 모인 서울시에 사람이 180만인 것을 보면 어느 수준인지 가히 짐작이 된다. 관음사는 교회가 많다는 군산에서도 더 많은 나운동에 자리한다.

다른 곳이었다면 단박에 일주만에 들어섰을 텐데,

'구스름하니 좋네요' 했던 차"라며 차를 따랐다. 정말 구스름했다. 사람이 제 각각이라지만 보는 눈도 입맛도 같기 때문일까. '구스름' 한 차 한 모금에 도시사와 나그네가 하나가 됐다. 이것이 자타불이(自他不二)인가보다.

잠시 세상은 이야기를 나눴다. 어려운 경제, 힘든 가정살림, 사바세계에서 고(苦) 아닌 것이 있을까 마는 재곤 스님이 그 고해(苦海)를 건널 묘안을 일러 준다.

"옛날 노스님이 '베풀어라. 베풀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이 나를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불자들이 부처님 앞에 불공(佛供) 올린다는데, 불공드리는 것은 부처님에게 내 모자란 것 채워달라면서 내가 가진 것을 내놓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든 주위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든) 아상(我相)을 버리고 베풀어야 합니다. 나를 버리고 하심(下心)해 상대를 존경하는 것 또한 베푸는 것이고요. 굳이

※ 카다로그가 필요한 사찰은 연락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덤핑으로 판매하는 타사 제품과 종이 질(두께), 스프링 제본 등 견고함을 비교하여 주세요!

역시 이름값하는 경인년 감로불교카렌다

귀의 삼보하옵고, 금번 폐사에서는 불기 2554년 카렌다를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말없는 포교사'라는 사명감으로 다양한 소재와 고품격 이미지로 정성을 다하여 한 차원 높은 카렌다를 제작하였습니다. 항상 부처님과 사부대중의 큰 은혜에 감사드리며, 전국에 계신 고승대덕 크스님들의 많으신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고마운 분들에게 더없는 법보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꽃의 미소-대, 소	 동자승의 세계-대, 소	 산사의 향기-대, 소	 달려라! 행복의 이야기-대, 소	 법음이 있는 산사-대, 소	 수행의 길-대, 소	 연꽃의 향연-대, 소	 아름다운 절-대, 소	 피안으로 가는 길-대, 소
 타이 있는 풍경-대, 소	 적멸보궁과 기도처-대, 소	 관음의 미소-대, 소	 산사에 피는 들꽃-대, 소	 선승의 노래-대, 소	 깨달음의 미소-대, 소	 세계불교 성지순례-대, 소	 염화미소-대, 소	 하얀꿈-소

규격: 특대호-국전 (91.9×61.5cm) | 한지-국 3절 (30.5×63cm) | 대-국 6절 (30×31cm) | 소-4×6 12절 (25.5×26.5cm) | 탁상용 (21.5×15cm) | 미니 차량용 (8.8×9.5cm) | 메모 수첩용 (9.5×13.5cm)

감로기획 서울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TEL. (02)723-4306 FAX. (02)738-8682 www.gamro.net

전국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